

베이비시터가 경험한 아동의 안전사고

김 미 희*

Safety Accidents which Baby-Sitters Caring Children Have Experienced

Mi-Hee Kim*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이란 0~19세까지의 대상자를 의미하며, 연령별에 따른 성장발달 특성을 갖는다. 이 중 특히, 5~8세 사이 아동의 경우, 신체 성장발달 특성상 신체적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서, 자전거타기, 인라인 스케이트 즐기기, 공놀이 등 많은 외부활동을 하게 된다¹⁾. 이 시기 아동들의 신체적 성장발육 특성에 따라 매우 활동적이고 신체적 발육이 빠를수록 그에 따른 안전사고에 의한 위험도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안전사고에 의해 매년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불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해 영구적 손상과 영구적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를 제외한 영유아기 사망률의 주요 원인은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비율이 가장 높으며, 안전사고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²⁾. 1996년 만 4세 미만의 아동사고 사망률은 63.1%인 것으로 보고되었고, 1972년 만 10세 미만의 아동 사고의 사망률은 52.7%인 것으로 보고되었다³⁾. 특히, 한국의 경우 연령별 사망원인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9세 이하 아동의 주요 사망원인은 익수사고, 운수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아동의 안전사고는 보호자의 주 역할이 되어야 한다. 아동을 돌보는 주 대상은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이다. 그러나 부모나 가족구성원이 아동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시 아동은 부모를 대신하는 베이비시터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돌봄을 제공받는다.

베이비시터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되지 않은 개념으로, 1996년 베이비시터 파견업이 처음으로 설립⁴⁾되었으나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베이비시터는 어버이가 외출시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를 대신하여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4,5,17)}을 지칭한다. 베이비시터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역할과 필요성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은 49.2%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55%로 보고되고 있다.

기혼여성의 자녀비율은, 연령별 아동 중 3세 이상은 71.1%, 2세 이하는 22.9%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가정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 안에서 나타나는 안전사고는 전체 사고율의 2/3을 차지하며¹⁾, 한국의 사고발생 실태와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⁶⁾에 의하면 Carter and Jones(1993)의 5세 이하의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고의 79%가 가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용하고 있다.

* 가천의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시간강사

가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유형으로는 전기제품에 의한 화상사고, 욕조에 의한 익수사고, 계단이나 의자 식탁 등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화학제품에 의한 유독성 약품과 세제에 의한 질식사고, 폐쇄된 공간에 의한 질식사고, 유모차에 의한 안전사고⁷⁾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 실태와 관련요인⁸⁾, 초등학생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개발⁹⁾,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사고예방 실천정도¹⁰⁾, 청소년의 안전심리¹¹⁾, 한국의 사고발생 실태와 사고예방 정책⁶⁾,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경향 예측도¹²⁾, 유아 안전을 위한 부모교육과 부모의 인식도¹³⁾, 영아돌연사와 관련된 위험요소¹⁴⁾, 아동기 사고예방에 관한 연구¹⁵⁾, 베이비위키와 아동손상정도¹⁶⁾, 베이비시터의 역할에 대한 부모의 베이비시터의 인식비교¹⁷⁾ 등으로 아동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고발생 실태/ 사고예방 정책,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들이며, 베이비시터들이 아동을 돌보며 경험하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따라 베이비시터들의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그 수가 증가되어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률, 안전사고의 원인, 안전사고의 종류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통계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시터가 아동을 돌보는 동안 경험한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과 사고의 종류, 사고시간, 사고유형 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하며, 본 연구결과는 아동 사고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시터가 아동을 돌보며

경험하는 아동의 안전사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베이비시터로 아동을 돌보며 경험한 안전사고의 종류와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시 실시한 대처방법이나 응급처치 방법 등에 대하여 파악하고, 베이비시터 교육시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아동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베이비시터란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개념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된 보육자로서 그 역할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미국의 경우 5세 미만의 아동 중 14%가 베이비시터에 의해 보육되고 있으며, 베이비시터의 주 역할은 영양관리, 식생활지도, 위생관리, 기본 생활관리, 교육관리,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닌 부모를 대신하여 사랑을 전달하는 육아 협력자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베이비시터의 역할 중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동안전에 관한 역할이며, 따라서 자격요건으로 만 19세 이상 고졸 학력 이상의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금연을 명시하고, 응급구조사 자격증과 무사고 운전면허, 건강진단서가 요구되어진다.

호주의 경우 역시 베이비시터 자격 연령을 18~19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특히 훈련과 경력을 중요시 하며, 금연,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1~2년 이상의 관련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히 응급구조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캐나다 안전위원회(The Canada Safety Council) 등에서 베이비시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베이비시터 자격 기준은 없으나, 일정기간 교육 및 인정시험을 거

치도록 하고 있으며, 인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지는 베이비시터의 개념은 가정 보육모, 파출부, 가정부, 보모, 대리양육자 등이라는 명칭으로 그 역할을 대신 해왔으나, 1996년 처음으로 베이비시터 파견업이 설립되었다. 그 후 베이비시터는 2001과 2002년 사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프렌차이즈 형태의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베이비시터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비율의 증대에 따라 그 필요성과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어지고 있으나, 현대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따른 생활의 여유, 취미생활 등에 따라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보육의 기존 개념은 어린이들에게 가정 밖에서 낮 동안 부모의 보호와 지도를 보충해 주는 서비스를 지칭하며, 어린이의 연령, 능력, 기질 등을 고려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수용하며, 어린이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¹⁸⁾. 그러나 현대에는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양육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대리양육자, 학습촉진자, 상호작용자, 생활대행자 등 전문가로서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어진다.

베이비시터는 주로 0~12세 정도의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며, 가정에서의 생활과 함께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면서 가사노동, 육아관리 등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전문 보육인의 필요성이 많이 강조되면서 그 수가 증가되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베이비시터는 20대가 55.3%, 46~50세가 46.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⁴⁾, 50.6% 이상이 고졸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또한 베이비시터 경력은 74%가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1%로만이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기타 자격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베이비

시터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아동의 대부분인 87.7%가 7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활동 시간대는 67.8%가 오후와 저녁시간에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⁷⁾.

그러나 모든 사고의 2/3은 가정에서 발생하며¹⁾, 특히 0~14세 아동의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사고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⁸⁾. 특히 사고로 인한 아동의 상해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보다 삶의 질적인 면에서나 남은 삶의 기간으로 보아 그 손실정도가 훨씬 크므로 아동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 역할은 매우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놀이터 사고, 추락사고, 화상사고의 순으로 빈도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며¹⁹⁾, 아동 안전사고 중 보행 중 교통사고의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80%를 차지한다²⁰⁾고 하였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위험에 대한 인지력이 낮고, 공간개념이나 위험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없어 부모의 보호와 안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며 특히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호기심이 많아 예기치 못한 사고의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초등학생은 스스로에 대한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은 있으나, 학교생활, 가정생활과 더불어 활동영역이 증가하여 더욱 더 안전관리 교육이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사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14세 이하 아동의 관련 사고는 전체 사고의 17.9%를 차지한다²¹⁾. 특히 보행기를 이용하는 5~15개월 된 아동 중 40%정도는 보행기 관련 상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⁷⁾되고 있으며, 사고발생의 호발연령은 1세 미만이며, 층계에서 떨어지거나, 턱이 진 곳에서 넘어지기, 가재도구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아안전을 위한 부모교육의 경험 및 인식도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안전의식과 태도가 자녀의 안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85.5%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¹³⁾, 부모가 경험한 유아 안전사고의 종류에는 놀이안전사고(49.4%), 교통사고(30.2%)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유아안전교육

을 받아 본 경험은 4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사고예방 실천정도를 연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거 아동의 안전사고 경험이 있는 경우가 23.7%이었으며, 사고유형별로는 열상(34.3%), 낙상(15.7%), 화상(15.7%) 등을 경험하였고¹⁰⁾, 특히 과거 안전사고 경험이 있는 부모의 경우 더욱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을 돌보는 베이비시터는 이러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안전을 책임지는 베이비시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리라 여겨지나, 현재까지 베이비시터에 의한 아동의 안전사고 비율, 사고의 종류, 사고의 형태 등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베이비시터들이 경험한 아동의 안전사고에 관한 조사연구로서,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이용한 개방식 질문지법을 이용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한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S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베이비시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대상자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베이비시터로 활동은 하고 있으나 베이비시터와 관련된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상자들로서, 총 102명 중 베이비시터로 활동하던 중 아동의 안전사고 경험이 있는 31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고자 동의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3. 연구도구

자료수집을 위한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문헌을 참고하여 반구조화 된 개방식 질문지를 연구도구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응급구조학과 교수 1인과 아동간호학교수 2인을 대상으로 내용과 형식에 대한 자문을 구한 다음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완성된 질문지는 다시 5인의 베이비시터를 대상으로 재검토하여 질문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최종 확정하였다.

질문지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일반적 사항으로 성별, 나이, 학력, 종교, 결혼여부, 가족상황과 자녀수 등에 대한 질문과, 둘째, 베이비시터 활동경험 유·무, 경력, 대상아동 수에 대한 질문과, 셋째, 대상아동 돌봄 시 경험한 안전사고의 종류, 아동의 성별, 아동의 연령/월령, 사고 장소/위치, 사고의 경중정도에 대한 질문과, 넷째, 아동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법/응급처치 방법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분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자료분석

자료수집 방법은 S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베이비시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1차 질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아동 안전사고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질문지 내용에 따라 2차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3주일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연구대상자를 연령별 분류, 자녀양육 경험별 분류, 베이비시터 경험 유·무별 분류, 경험한 안전사고 유형별 분류 그리고 안전사고 시 실시한 응급처치방법 등에 대하여 분류하였으며, 대상자의 빈도수를 통해 특징적인 사항을 파악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의 통계적 분석은 SPSS PC+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베이비시터의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1~25세가 6.5%, 26~30세가 6.5%, 31~35세가 9.7%, 36~40세가 12.8%, 41~45세가 32.2%, 46~50세가 19.4%, 51~55세가 9.7% 그리고 56세 이상이 3.2%로 나타났다. 이것은 베이비시터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25세 미만이 29.6%, 35~40세가 21.0%로 나타났으며¹⁷⁾, 영리보육의 현황을 연구한 연구결과에서는⁴⁾, 20대가 55.3%, 46~50세가 46.1%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41~50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의 성장발달 시기와 관련하여 자녀양육 시기가 지난 뒤 사회/경제적 참여활동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베이비시터의 학력은 고졸이 48.3%, 전문대졸이 35.5%, 대학졸이 6.5%, 기타(재학생)가 9.7%로 나타났다. 기타(재학생)의 경우는 본교 유아교육과 재학생으로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이수하고자 본 강의를 신청한 학생이었다. 대학졸이나 전문대졸의 경우 역시 취업의 한 방법으로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이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영리보육의 현황과 정책과제와 베이비시터의 역할과 부모의 인식비교 연구에서도 고졸이 50.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17)}.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베이비시터들의 역할에 필요한 아동과 관련된 안전 교육이나 유아교육, 아동심리와 같은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지며, 베이비시터 역할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되어진다.

<표 1> 베이비시터의 일반적 특성

(n = 31)

변 수	범 주	빈 도	백분율(%)
성 별	여	31	100.0
연 령	21~25세	2	6.5
	26~30세	2	6.5
	31~35세	3	9.7
	36~40세	4	12.8
	41~45세	10	32.2
	46~50세	6	19.4
	51~55세	3	9.7
	56세 이상	1	3.2
학 력	고졸	15	48.3
	전문대졸	11	35.5
	대학졸	2	6.5
	기타(재학생)	3	9.7
결혼여부	미혼	5	16.1
	기혼	26	83.9
자녀수	0명	5	16.1
	1명	13	41.9
	2명	11	35.5
	3명 이상	2	6.5
계		31	100.0

베이비시터의 결혼여부는 미혼이 16.1%, 기혼이 83.9%로 나타났으며, 베이비시터의 자녀수는 1명을 둔 경우 45.2%, 2명을 둔 경우 38.6%, 3명을 둔 경우 6.5%로 나타났다. 이것은 베이비시터의 연령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아동의 성장발달시기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알맞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베이비시터 활동경험과 대상아동

연구대상자들의 베이비시터 활동경험과 관련된 사항은 <표 2>와 같다. 베이비시터의 활동경력으로 0~6개월인 경우 48.3%, 6개월~1년인 경우 29.1%, 1년~2년인 경우 9.7%, 2년~3년인 경우 9.7%, 3년 이상인 경우는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베이비시터의 역할과 부모의 인식비교 연구결과에서도 1년 이하 경력이 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⁷⁾.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베이비시터의 경력이 매우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베이비시터라는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분석되어지며, 또한 직업으로서 안정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파악된다.

베이비시터 활동 이유에 대해 경제적인 이유가 54.5%, 아동이 좋아서 12.8%, 소일꺼리 19.5%, 기타 12.8%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경우는 재학생으로서 경험을 쌓기 위해, 직업 선택을 위한 경험과 자신의 적성을 알아보기 위해, 그리고 옆집 아동을 돌봐준 경험이 있어서 등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베이비시터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시터로 활동하는 시간대는 오전이 12.8%, 오후가 51.6%, 저녁이 9.7%, 종일이 25.9%로 나타났다. 오후 활동 시간대가 가장 많은 것은 아동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대상 아동의 연령은 1년 이하 22.6%, 1~2세

<표 2> 베이비시터의 활동경험과 관련사항

(n = 31)

항 목	범 주	빈 도	백분율(%)
경 력	0~6개월	15	48.3
	6개월~1년	9	29.1
	1년~2년	3	9.7
	2년~3년	3	9.7
	3년 이상	1	3.2
베이비시터 활동 이유	아동이 좋아서	4	12.8
	경제적인 이유	17	54.5
	소일꺼리	6	19.4
	기타	4	12.8
활동시간	오전	4	12.8
	오후	16	51.6
	저녁	3	9.7
	종일	8	25.9
대상 아동의 연령	1년 이하	7	22.6
	1~2세	10	32.2
	2~3세	5	16.1
	3~4세	5	16.1
	4~5세	2	6.5
	5세 이상	2	6.5
계		31	100.0

32.2%, 2~3세 16.1%, 3~4세 16.1%, 4~5세 6.5%, 5세 이상이 6.5%로 나타났다. 베이비시터가 가장 많이 돌보는 아동의 연령은 3~5세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서 귀가 한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연령과 베이비시터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와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3. 베이비시터가 경험한 안전사고의 종류와 관련사항

베이비시터가 아동을 돌보는 동안 경험한 안전사고의 종류는 다음 <표 3>과 같다. 안전사고에 의

한 사고종류로는 낙상에 의한 사고가 22.6%, 문에 손 끼임 6.5%, 계단에서 넘어짐 9.7%, 욕실에서 미끄러짐 9.7%, 물체 낙상에 의한 손상 3.2%, 부딪침 16.1%, 보행기 사고 19.4%, 헬스기구에 의한 화상 3.2%, 장난감/놀이기구 3.2%, 기타 무응답으로 6.5% 등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사고예방 실천정도를 연구한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사고경험 중 열상(34.3%), 낙상과 화상(각 15.7%), 골절(14.9%) 순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¹⁰⁾, 유아안전을 위한 부모교육의 경험과 인식도를 연구한 연구결과에서는 놀이안전사고(49.4%), 교통사고(30.2%) 순으로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¹³⁾. 또한 초등학교

<표 3> 베이비시터가 경험한 안전사고의 종류 (n = 31)

항 목	구 분	빈 도	백분율(%)
안전사고에 의한 사고종류	낙상	7	22.6
	문에 손 끼임	2	6.5
	계단에서 넘어짐	3	9.7
	욕실에서 미끄러짐	3	9.7
	물체 낙상에 의한 손상	1	3.2
	부딪침	5	16.1
	보행기사고	6	19.4
	헬스기구에 의한 화상	1	3.2
	장난감/놀이기구	1	3.2
	기타/무응답	2	6.5
아동의 성별	남	19	61.3
	여	12	38.7
아동의 연령/월령	1년 이하	1	3.2
	1~2세	12	38.7
	2~3세	8	25.8
	3~4세	7	22.6
	5세 이상	3	9.7
사고 당시 돌봄 행위	우유 준비	9	29.1
	외출준비	5	16.1
	개인위생	5	16.1
	식사	3	9.7
	전화통화	5	16.1
	휴식	2	6.5
	기타/무응답	2	6.5
사고시기	오전	11	35.5
	오후	20	64.5
계		31	100.0

교 저학년 아동들의 안전사고 발생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⁸⁾ 사고 원인별 빈도 중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에 의한 사고(48.9%), 자전거에 의한 사고(17.4%), 운동기구나 놀이기구에 의한 사고(15.7%)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행기 사용과 사고에 관한 연구⁷⁾에서는 보행기가 굴러 넘어짐(52.4%), 보행기에 의한 사고(21.4%), 가구에 부딪힘(15%)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한국의 사고발생 실태와 정책연구결과⁶⁾에서는 가정 내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형태는 추락사고(56%)라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베이비시터가 가장 많이 경험한 안전사고는 낙상에 의한 것으로서, 낙상 사고의 원인으로는 침대에서 굴러 떨어짐, 소파/의자나 식탁에서 굴러 떨어짐, 난간에서 떨어져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이었다. 문에 손 끼임 사고는 기어 다니거나 잡고 서서 걸음마를 배우는 시기의 아동들에서 나타났다.

물체 낙상에 의한 안전사고는 선반 위의 장식품이나 끈 등을 잡아당기면서 떨어진 물체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부딪침에 의한 안전사고는 가구나 문 등의 모서리에 의한 사고였다. 보행기에 의한 안전사고는 보행기에서 굴러 떨어짐, 보행기와 차량의 부딪침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또한 장난감이나 놀이기구 이용 시에도 부딪치거나 굴러 떨어지는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안에 있는 헬스기구에 의한 아동의 화상 사고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안전 사고율은 남아가 61.3%, 여아가 38.7%로 남자를 돌보는 베이비시터가 더 많은 안전사고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 경향에 관한 연구¹²⁾에서도 남아의 사고 위험도가 여아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여아 보다는 더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아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 파악된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률은 1년 이하가 3.2%, 1~2세 38.7%, 2~3세 25.8%, 3~4세

22.6%, 5세 이상 9.7%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전 사고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경향 예측에 관한 연구¹²⁾에서도 6, 5, 4세 아동 간 위험에 대한 지각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아동의 연령과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위험 인식도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사고당시 베이비시터의 돌봄 행위는 우유 준비 29.1%, 외출준비 16.1%, 개인위생 16.1%, 식사 9.7%, 전화통화 16.1%, 휴식 6.5%, 기타 무응답으로 6.5%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위생시에는 아동이 잠든 시간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는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행기 사용과 사고 실태조사를 조사한 연구결과⁷⁾에서도 보행기 사고 관련 당시 돌봄 사람의 행위로는 식사준비(42.9%), 청소(27.4%), 휴식(14.3%) 등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와 같이 우유 준비나 식사 준비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의 시기는 오전에 35.5%, 오후 64.5%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고발생 실태와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연구⁶⁾에 의하면 하루 중 사고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후 1~6시이며, 사고가 가장 빈번한 시간대는 오후 5시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의 활동시간대와 사고발생 시기가 비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베이비시터가 경험한 안전사고 상해부위와 응급처치

안전사고에 의한 아동의 상해부위와 응급처치는 다음 <표 4>와 같다. 안전 사고시 상해부위 중 얼굴부분이 3.2%, 머리부분 12.8%, 가슴부분 9.7%, 등 부분 6.5%, 복부부분 3.2%, 팔 부위 38.7%, 다리부위 25.8% 등 신체의 다양한 부분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이 경험한 안전사고 발생 실태 및 관련요인을 분석한 연구결과⁸⁾에 의하면 사고부위는 다리부분(45.6%),

〈표 4〉 베이비시터가 경험한 안전사고 상해부위와 응급처치

(n = 31)

상해부위	얼굴부분	1	3.2
	머리부분	4	12.8
	가슴부분	3	9.7
	등부분	2	6.5
	복부부분	1	3.2
	팔부위	12	38.7
	다리 부위	8	25.8
응급처치방법	응급실 내원	3	9.7
	외래방문	1	3.2
	가정에서 응급처치	8	25.8
	입원	1	3.2
	관찰	16	51.6
	기타/무응답	2	6.5
계		31	100.0

팔 부위(13.1%), 발, 발목(11.4%) 순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행기사고에 의한 안전 사고 시 사고부위⁷⁾는 얼굴부위(뺨, 코, 귀) 손상(46.4%), 턱 부위손상(32.1%), 두부손상(9.5%), 팔다리(2.4%)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아동의 안전사고에 의한 사고부위는 연령이 어릴수록 얼굴, 턱을 포함한 두부손상이 많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전사고에 의한 사고부위는 손, 발을 포함한 팔다리 손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 분석에 따라 아동을 돌보는 베이비시터는 연령에 따른 아동의 특성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더욱 전문화된 베이비시터의 역할과 안전교육이 요구되어짐을 알 수 있다.

얼굴부분의 상해로는 물체의 낙상에 의한 열상, 가구에 부딪쳐서 생긴 타박상 등이었으며, 머리부분의 상해는 의자/소파나 식탁, 가구 위에서 떨어지면서 입은 타박상, 부딪침에 의한 타박상 등이었다. 가슴부분의 상해 역시 가구나 장식품에 의해 부딪쳐서 생긴 상해였으며, 등 부분의 상해 경우는 미끄러지거나 부딪침에 의한 타박상이었다. 신체부분 중 가장 많은 상해를 입은 곳은 팔이나 다리 부위로 문에 손 끼임, 장난감이나 놀이기구, 가구나 장식품에 부딪치거나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발생시 취한 응급처치방법으로는 응급실 내원이 9.7%, 외래방문 3.2%, 가정에서 응급처치 실시 25.8%, 입원 3.2%, 관찰 51.6%, 기타 무응답이 6.5%로 조사되었다. 유아안전을 위한 부모교육의 경험과 인식도를 연구한 연구결과¹³⁾에서는 유아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하는 방법으로 우선 응급처치부터 한다(70.2%), 119로 전화한다(25.7%)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베이비시터 대부분이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시 취한 응급처치방법으로는 대부분이 아동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찰시 타박상의 경우 안아서 달래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며, 잠을 재우는 것 등 안정시키는 방법을 취하였으며, 외상의 경우는 집안에 비치되어 있는 구급약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베이비시터 교육시 안전교육, 사고 대책, 안전사고 후 응급처치 방법 등에 대한 아동안전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베이비시터가 아동을 돌보며 경험한

아동안전사고의 종류와 안전사고 원인과 안전사고 시 상해부위 및 응급처치 방법은 어떠한지 분석해 보기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베이비시터들이 경험한 아동의 안전사고에 관한 조사연구였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개방식 질문지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S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베이비시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총 102명 중, 베이비시터로 활동하던 중 아동의 안전사고 경험이 있는 31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도구는 반구조화 된 개방식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3주일간 실시하였다. 질문지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연구대상자를 연령별 분류, 자녀양육 경험별 분류, 베이비시터 활동경험 유·무별 분류, 경험한 안전사고유형별 분류 그리고 안전사고시 응급처치방법 등에 대하여 분류하였으며, 대상자의 빈도수를 통해 특징적인 사항을 파악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의 통계적 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사항으로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41~50세가 32.2%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으로는 고졸이 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83.9%이며, 자녀수는 1명이 4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베이비시터 활동경험과 관련된 사항으로 베이비시터 활동경력으로 0~6개월이 48.3%로 나타났으며, 베이비시터를 선택한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54.5%를 차지하였다. 베이비시터로 활동하는 시간 대로는 오후시간이 가장 많은 51.6%였으며, 돌봄 대상 아동의 연령은 1~2세가 3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상아동 돌봄 시 경험한 안전사고의 종류에는 낙상이 22.6%와 보행기 사고 경

험이 19.4%였으며, 남자 아이의 사고율이 61.3%를 차지하였고, 아동의 연령은 1~2세가 3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당시 베이비시터가 실시한 돌봄 행위는 우유준비가 29.1%, 외출준비와 개인위생이 각각 16.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고 시기는 64.5%가 오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안전사고시 아동의 상해부위는 팔다리 부위가 각각 38.7%, 25.8% 그리고 머리부분이 12.8%를 차지하였으며, 안전사고시 베이비시터가 실시한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51.6%가 아동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어린이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어린이를 돌보는 대상자의 주요한 의무이며 역할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아동을 돌보는 베이비시터의 경험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사고 정도와 사고의 종류, 응급처치 방법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베이비시터 교육시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아동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대학 평생교육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로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 조사,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김영혜(2003). 아동간호학 총론. 현문사.
2.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1997). Annual report of statistics on death

- causes. Seoul.
3. 손인아(2001). 아동안전사고예방. 한국응급구조학회지.
 4. 서문희(2002). 영리보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부 정책과제토론회자료 2002-6.
 5. Laberge Nadeau, C., Maag, U. & Bourbeau, R.(1992). The effects of age and experience on accidents with injuries ; should the licensing age be raised?.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24(2), 107~116
 6. 이경자, 이정렬, 강규숙, 한정석(2005). 한국의 사고발생 실태와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5(2), 362~371.
 7. 한정석, 신현숙(1999). 어린이 보행기 사용과 사고 실태조사. *대한간호학회지*, 29(2), 361~370.
 8. 김소선, 이은숙(1999).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안전사고 발생실태 및 관련요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9(1), 117~126.
 9. 정은순, 정인숙, 송미경(2004). 초등학교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4(3), 485~494.
 10. 김신정, 최환석(1999).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사고예방 실천정도. *대한간호학회지*, 29(3), 56~664.
 11. 박영신(2003). 한국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과 안전효능감 및 부모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학회지*, 9(1), 89~105.
 12. 이자형, 김신정, 이정은(1998).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 경향 예측도. *대한간호학회지*, 28(3), 662~675.
 13. 홍명희, 정영숙, 장혜자(2004). 유아안전을 위한 부모교육의 경험과 부모의 인식도.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741~750.
 14. Moon, Rachel Y., Sprague, Bruce M. and Patel, Kantilal M.(2005). Stable prevalence but changing risk factors for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in child care settings. *Pediatrics* 116(4) : 972-977.
 15. Bass, J. L., et al(1993). Childhood injury prevention counseling in primary care settings ;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Pediatrics*, 92(4), 544~550.
 16. Holroyd, H. J.(1982). Injuries related to baby walkers. *Pediatrics*, 70, 107~147.
 17. 이영미(2002). 베이비시터의 역할에 대한 부모와 베이비시터의 인식비교.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 보건복지부(2002). 보육사업지침. 보건복지부.
 19. 강희숙(1994). 어린이 우발사고 요인 및 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고경화(1992). 한국의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사고원인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한국산업안전공단(1996). 초등학교 어린이 사고사례 분석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Abstract =

Safety Accidents which Baby-Sitters Caring Children Have Experienced

Mi-Hee Kim*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baby-sitters who have experienced safety accidents of children ; the causes of safety accidents, wounded parts of the body caused by safety accidents and how to handle emergency situation.

The research participants consisted of 31 baby-sitters who have experienced safety accidents of children and have been participating in Baby-Sitter Programs at S university, in Suwon Kyunggi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3th to July 4th, 2007 using open questionnaires on semi-structu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SPSS PC+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according to the general demographics, it has indicated that 32,2% of baby-sitters who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are mostly the age group of between 41 and 50years old. And 48,3% of baby-sitters are graduated from high school. In addition, 83,9% of baby-sitters go married and 41,9% of them have only one child.

Second, in terms of experiences about baby-sitting, 51,6% of baby-sitters mostly do their jobs in the afternoon. They usually cared 1 or 2years old babies in the afternoon time. 48,3% of baby-sitters experienced baby-sitting for less than 6months. And the financial support was the main reason why they decided to do baby-sitting jobs.

Third, the causes of safety accidents while caring children, included 'falling down(22,6%)', 'baby-walker(19,4%)'. Also, it was found that 61,3% of children who had accidents were male. When safety accidents occurred, the baby-sitters had been doing 'feeding milk(29,1%)', 'going out(16,1%)' and 'self-care(16,1%)'. Also, it has shown that the accidents mostly occurred in the afternoon(64,5%).

Fourth, the parts of the injuries in safety accidents, predominantly involved the parts of arms(38,7%), legs(25,8%) and head and neck(12,8%).

In conclusion, this research was intended to provide the basic data in safety accidents of children who were cared by baby-sitters. In the further research, it is suggested that studying for safety accidents of children and safety education programs for baby-sitters should be necessary.

Key Words : baby-sitter, safety accident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
2007. 10. 26	2007. 11. 14	2007. 12. 7

* Dept. of Emcergency Medical Technology Chungju National University